봄철 논 풍경, 모내기 대신 볍씨 파종

논에 물 채운 상태에서 싹 튼 볍씨 공중서 뿌리는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 농진청, 고창·부안 포함 21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

임모율 개선 우량계통 '전주656호' 개발해

지난 28일 충남 아산시 아산설화직파재배단지에서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드론 직파재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 보급의 일환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담수직파재배(이하 드론 담수직파) 시범단지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새로 개발한 담수직파용 우량계통을 시범 파종한다.

드론 담수직파는 논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싹이 튼 볍씨를 드론으로 공중에서 바로 뿌려 재배하는 방식이다. 직파재배는 모를 논에 심는 이앙재배에 비해 노동력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8개 지역에서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고창, 부안 등을 포함해 21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담수직파는 기계이앙에 비해 초기 물 관리와 잡초성 벼 방제가 어렵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가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담수직파 재배의 단점 극복을 위한 재배기술이 정립되었고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잡초성 벼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볍씨 파종(씨뿌림) 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추고, 파종량은 10아르(1,000제곱미터)당 3kg이 적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10아르당 파종량이 3kg보다 많으면 벼 쓰러짐 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국 담수직파 면적은 약 1,715헥타르로 전국 직파재배 면적의 약 12.1%정도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담수직파 재배면적 확대의 일환으로 볍씨가 정상적인 어른 모로 자라는 비율인 입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우량계통 '전주656호'를 개발했다. '전주656호'의 입모율은 67%로써 기존 담수직파 적응성 품종인 '동안'벼 보다 약 20% 이상 개선돼 재배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낮은 수온에서도 싹이 잘 나와 파종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저온환경에 더욱 안정적이다.

농진청은 올해 추진하는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 지역 가운데 2곳(고창, 아산)에서 '전주656호'를 검증한다. 직파 후 입모율과 재배과정 중 쓰러짐에 대한 버팀성 정도를 기존 벼 품종과 비교하는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의 반응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은 지난 28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드론 담수직파 연시회에 참석하고 관계관 및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차장은 "드론 담수직파 재배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올해 추진한 시범재배단지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담수직파 재배 확대를 통해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에 노력하겠다"면서 "'전주656호'은 파종 후 담수조건에서도 입모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담수직파 재배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한국직파협회의 고재권 사무총장은 "직파협회에서도 드론직파 기술 및 우량계통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종합소득세 간편조회, 모바일로

NH농협은행, 개인사업자 위해 출시
소상공 전용 플랫폼 통해 확인 가능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 'NH소상공인파트너'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조회·전송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간편조회·전송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로, 40여개 기관, 80여종의 증빙서류를 일괄 조회·수집해서 세무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홈택스), 필요경비(은행,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매출내역 및 소득자급명세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사진촬영으로 전속 세무사에게 전송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NH소상공인파트너는 농협은행 전 영업점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와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한편, 농협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NH소상공인파트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LX' 상호·상표 사용 최종 합의 | LX공사-LX홀딩스 상생 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홀딩스가 'LX' 상호 및 상표 사용과 관련한 상생협력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와 LX홀딩스(사장 송치호)가 'LX' 상호 및 상표 사용과 관련한 상생협력안에 최종 합의했다.

LX공사는 ㈜LX홀딩스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사의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날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에는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LX홀딩스 송치호 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성실 이행을 약속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양사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상생협력 방안의 가치에 힘을 실었다. LX홀딩스 송치호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X공사와 LX홀딩스는 각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 또 상생과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각자의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해외사업(공간정보인프라, 스마트팜, 플랜트사업 등) 및 첨단기술 사업분야(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드론, 로봇, IoT 등)에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밖에 스타트업 지원, 스포츠팀 후원,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분야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관 상생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 포도 수출 전년대비 34.7% 증가

예냉·저장방법 개선 품질향상 지원 '결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포도의 품질향상 지원과 예냉 및 저장방법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0년도 포도 수출이 전년대비 34.7% 증가한 역대 최고인 3,100만불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49.5% 증가한 722만 7,000불을 수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바비, 하이선)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출 규격품 출하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한 것이다.

이러한 수출 성과에는 농식품부와 포도수출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주))의 광합성을 돕는 영양제 보급·지원, 품질향상 교육 확대 및 선과장의 품위관리준수 지도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포도(샤인머스캣) 출하물량이 일시에 몰려 국내 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포도 수출 비중의 약 88.7%를 차지하는 샤인머스캣의 저장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이나, 수확 후 예냉처리와 저장방법 개선을 통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저장기간을 5개월까지 늘렸으며, 이를 통해 주 수출시기(11월~익년 1월)보다 2개월이 더 연장된 3월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약 30% 이상의 높은 수출단가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마지막 장기저장 물량(3월, 800kg)은 베트남으로 수출됐으며, 현지에서 판매 당일 바로 완판이 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았으며, 바이어측에선 여분의 물량이 있다면 추가 수입을 희망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최대 수출국에 해당한다. /김윤상 기자

1분기 기금 적립금 872조5000억

국민연금, 전년비 38조8000억 ↑… 현재까지 472조3000억 누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전년도 말 대비 38조8,000억원 증가한 872조5,000억원(잠정)으로 집계 됐으며, 운용수익률은 1분기 동안 3.94%(잠정)를 나타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한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부터 올해 3월 말 현재까지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472조3,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 경제는 충격을 이겨내며 곳곳에서 회복 신호를 나타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각국의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유지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1분기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국가별 경기 회복 국면에 차별화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도 상존하고 있다.

자산군별로는 주식이 증시 상승으로 국내 및 해외 자산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고, 채권은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발생으로 음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주식은 세계 각국의 백신 보급과 추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및 글로벌 증시 모두 상승함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자산 모두 9% 내외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채권의 경우,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음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다만, 해외 채권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이익 증가로 원화표시 수익률이 약 1.6%를 기록했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 수익만을 반영한 잠정 수치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루어짐에 따라, 연간 최종 수익률은 다음 해 6월 말에 의결되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김윤상 기자

신협, 지난해 결산 총액 1534억원 조합원 배당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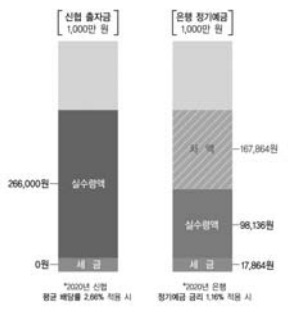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의 40.1% 규모

신협이 2020년 결산 결과 총액 1534억 원을 조합원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2020년 당기순이익인 3831억 원의 40.1%에 해당하는 규모로, 출자금 배당 및 이용고 배당에 각각 1438억 원, 96억 원씩 환원했다. 높아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 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

김윤식 회장은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이익의 대부분을 조합원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금융"이라며 "이외에 어린이집, 헬스장, 문화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도 환원돼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협 출자금 및 은행 정기예금 실수령액 비교〉



올해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66%로, 2020년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1년 만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인 1.16%를 훨씬 웃돈다. 조합원이 1년간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6만 6천 원을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더욱이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소득세 14% 및 농특세 1.4%)가 부과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이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김일환 본부장은 "최근 수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출자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며 "특히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적은 돈으로 출자해 장기간 예치 시 연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은퇴자금처럼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지원

도·테크노파크, 프로그램 참여기업 내달 21일까지 모집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1년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직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중개해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이다.

필요한 기술사업화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신청하면 평가과정을 거쳐 기업당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은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해 도내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전북테크노파크 기술인력창업팀(063-219-2163)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작년에 지원한 모 기업은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인도 철도회사와 $ 60만 상당의 기술 및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